

정을 심는 사람들



2011 VOL.15 신년호



(사) 정을심는복지회

www.peoplelove.org

연혁

- 1988. 09. <사람사는정을심는모임> 창립
- 1991. 09. 미혼모·자 보호시설<미혼모·자의 집> 운영 개시
- 1997. 06. 부속시설인 <개구장이 어린이집> 개원
- 2004. 07. 27 (사)사람사는정을심는복지회 창립
- 2004. 10. 사랑의 두손잡기 사업 시작
- 2004. 12. 본회 부설 정산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든집> 개소
- 2004. 12. 성남지역 및 전남지부 사랑의 연탄나누기(169가구)
- 2005. 02. 소식지<정을심는사람들> 창간 / 사랑의 저금통 제작(1000개)
- 2005. 06. 16 <정을심는콘서트> 개최
- 2006. 07. 청소년 길거리 이동상담 시작
- 2006. 09. (사)정을심는복지회로 명칭 변경 / 2006자원봉사박람회 공로상 수상
- 2006. 10. 20 <정을심는콘서트2> 개최
- 2007. 11. 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 및 청소년 계도활동
- 2008. 12. 10 본회 20주년 기념행사
- 2009. 8. 10~11 청소년비전캠프 “즐거운 상상” (경기도 이천)
- 2009. 10. 30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개소
- 2009. 12. 19 제2회 청소년사진공모전 시상식, 성남시청소년쉼터 문화·교류활동
- 2010. 02. 08 제4회 사랑의 떡국나누기
- 2010. 03. 24 현대해상 후원 사랑의 쌀 나눔행사
- 2010. 06. 09 유해환경감시단 경기도지사 표창수상
- 2010. 06. 28 정든집 바자회 “Green Jump”
- 2010. 07. 03 제주지부 “찾아가는 음악회”
- 2010. 08. 17 한울청소년 여름캠프(경기도 양평)
- 2010. 09. 15~17 제3회 한가위나눔행사(금융결제원, KT, 한국전력공사)
- 2010. 10. ~ 11. 제2회 남한산성바로알기프로그램
- 2010. 10. 1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도단속활동
- 2010. 10. 29 전국동시 거리이동상담
- 2010. 11. 13 한울 족구대회
- 2010. 11. 18 제10회 사랑의 연탄나누기(금융결제원)
- 2010. 11. 19 원예치료작품전시회 / 광주·전남지부 자선기금마련 호프데이
- 2010. 11. 20 제주지부 제7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 2010. 11. 30 광주·전남지부 제3회 김장담그기 및 직원연수
- 2010. 12. 18 한울쉼터 청소년문화활동(쿠키만들기)

사정중심은복지하는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후원자들이 은행에 가서야 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고 OMS 금융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와 모든 은행 전산시스템을 사용 접속시켜 후원금 입금을 대안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전화 한통 031-757-0177, 1176으로 간단히 후원 가입이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아래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 031-757-6200로 보내주면 됩니다.

후원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자택	주소	e-mail	
	전화	휴대폰	
직장	직장명	주소	
	전화	팩스	
CMS 출금이체동의서 · 출금은행: · 계좌번호: · 후원금액 · 예금주 주민번호: 예금주: (인) (출금예정일: ☐ 5일 ☐ 15일 ☐ 25일)			
본인은 (사)정을심는복지회의 후원자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추천자			
 (사) 정을심는복지회 Tel. 031-757-0177,1176 Fax.031-757-6200  ※ 일반이체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6-305074 (사)정을심는복지회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정태자 _ (사)정을심는복지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정을심는복지회는 올해 창립 23주년이 되는 해로 88서울올림픽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올림픽 유치 이후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2010년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협력의 중심국으로 인정받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심는복지회는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결연사업과 상담을 통한 '사랑의 두손 잡기' 사업, 건강관리와 복지지원 등의 생활필수품 지원에서부터 음악회 등의 문화복지활동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은 청소년을 유해한경로로부터 지키기 위한 본회의 유해한경감시단이 경기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유해한경감시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청소년에 대한 깊은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청소년 복지사업을 전개한 본회는 2009년 7월 시로부터 성남시청소년일시신택터 '한울'을 위탁받았습니다. 약 4개월의 개소 준비를 거쳐 2009년 11월 개소한 이후, 2010년 한해 연간 이용청소년 1,850명, 길거리 이동상담을 통해 만난 청소년 12,356명, 상담실적 1,050건을 기록하였으며, 개별상담, 각종검사, 청소년 문화활동과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연간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에 제시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남시청소년일시신택터 '한울'은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휴식을 안겨 주고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에도 길거리 이동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 12월에 개소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든집'에서는 현재 8명의 회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든집' 회원들은 생활재활을 거쳐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을 하여 잘 유지하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쿠키를 직접 구워 판매도 하고 있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기도 하며,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은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들은 우리사회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한해, 본회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님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기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음에 본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모든 분들의 협력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을 위시한 소외계층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사)정을심는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善行(선행)을 先行(선행)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최란 서울종합예술학교 부학장
(사)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

흔히 연예인을 가리켜 ‘공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예인들의 언행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입는 의상이나 소품은 완판이 되고, 그들이 많이 찾는 곳은 명소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예인들의 가치관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에 사회적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예인들의 선행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톱스타들의 선행은 그 규모가 관계없이 영향력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남몰래 선행을 펼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행과 봉사가 마치 자신의 친직인 듯 지속적인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연예계 곳곳에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온 저도 미약하나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아줌마인지라 ‘밥힘’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랑의 밥차나 쌀 모으기 행사 등을 참여해왔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김장도 담가 왔습니다. 정성껏 모은 쌀이 누군가의 밥상에 따뜻한 밥이 되고, 알싸한 햇김치를 그 밥상에 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안 먹어도 저절로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에 포만감이 들었습니다.

옛 어머님들은 끼니때마다 쌀 한줌씩 절미(節米) 항아리에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좁도리’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상은 궁색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해진 세상만큼 각박해진 인심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라지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둘러보면 작은 선행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 무엇이든 함께 나누다는 생각이 봉사와 기부의 시작입니다.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재능 기부 또한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게나마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행(善行)을 선행(先行)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행복과 보람은 어느새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민진칸_ 변호사, 본회 후원회 부회장

성남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결국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청소년시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기라고 하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에 더하여 사춘기라는 특성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 적도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살까,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지요. 제가 법과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얻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고 그것이 내게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설정되었고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님이 봅니다. 청주에서 부모님 품안에서 있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 기숙사를 나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며 고사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2차 시험 불합격에 결국 미루었던 군대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눈물로 배웅하는 부모님을 떠나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때가 28살 1996. 12. 16. 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눈물로 많이 흘렸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느꼈던 절망감은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알 좋은 일은 한계밖에 몰려온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28살에 군입대, 그후 아버지의 주시투자 실패, 가정의 경제적 파탄, 아버지의 사망..... 이 모든 일들이 군입대후 한계밖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더 이상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꿈을 꿀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군에 매여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8. 12. 31. 제대를 하였습니다. 하루 자고 낯더니 나이가 벌써 서른, 이제 경제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마련해주시면 딱 1년만 공부하고 더 이상 사법시험 준비를 포기하겠다고, 어머니도 그동안의 제 노력이 아까우셨나 봅니다. 제 간청을 받아들여셨고 저는 그 길로 서울 신림동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저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제대하고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는 불과 한달 보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껴왔습니다. 아침피 자야할 것이라면 가장 졸음이 올 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몰입하지는 계획을 세웠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점심 식사 후 1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만을 자고 하루 19시간 이상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산기합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단 한 번도 책상 앞에 앉아 졸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맞나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사법시험 2차 시험까지는 불과 두 달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결국 그해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 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맘고생하신 것 아들로서 내색도 못하고 참 많이 미안했었는데, 제 합격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전 현재 제가 하고 싶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꿈도 잃어버린 채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꿈, 소망은 바라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진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꿈을 꾸는 이상 여러분은 진짜 어른으로 멋지게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항상 꿈을 꾸는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인연으로 남겨지길 소망하면서...

김성희, 신임간사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간사 김성희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랑의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린시절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그래서 주위의 따뜻한 도움을 받고 초·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사춘기였나 봅니다) 따뜻한 손길을 저는 차갑게 외면하려 했고 어려웠던 현실을 회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따뜻함으로 인해 차가웠던 저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받은 온기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꼭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지’ 하며 그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급이급이 돌아 이제야 비로써 사회복지사의 길을, 그 첫발을 (사)정을심는복지회에서 시작하게 되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소외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을심는복지회와 함께 그 꿈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 홍보대사 신년인사

강석 · 김혜영_ 본회 홍보대사

안녕하십니까?

(사)정을심는복지회 홍보대사 강석 · 김혜영입니다.

2010 기축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네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사건사부터 연명도 해전 까지 안보의 위협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물가 등,

“등 따습고 배 부르면 무슨 걱정이 있오라”

라고 하시던 선조들의 말씀이 절로 생각나게 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평화롭고 부자란한 토끼의 모습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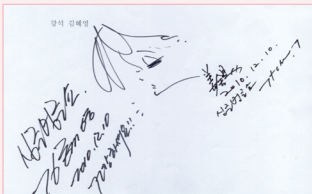
정을심는복지회의 큰 도약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며,

회원들과 후원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1년 내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

본회에서는 2010년 5월 17일 북정동 주민센터 2층 강의실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감시단원교육 시작 전 강만수 단장의 인사와 임원 및 단원들의 소개 및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서초경찰서 이문섭 강사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위와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모든 단원들의 모습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자신의 자녀처럼 지키겠다는 열의가 보였다.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을 끝마친 본회 정태자 회장을 비롯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15명은 청소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 바로알고, 앞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시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단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육 시간이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본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 4년이 됨에 따라 단원들의 활동이 보다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강화되었다.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해 인터넷 및 신문을 통한 관련기사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일탈의 유혹을 받기 쉬운 수전동, 아담동, 모란역 등의 밀집상가의 업소 방문 및 청소년 계도에 도움이 되는 유인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다. 2010년 5월부터 본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내용으로 감시·순찰캠페인 포럼 활동을 총 8회에 걸쳐 160명이 참여하여 약 3,000개의 홍보지와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으며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한 모니터링은 740회에 이르렀다.



“원예치료프로그램으로 하나된 우리”

“2010년 5월 13일 시작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We are one’ 이라는 주제로 10월 14일까지 16회기로 진행되었다.

원예활동이란, 살아있는 식물과 오감에 의해 교제하여 식물이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감각체험)과 그것에 대하여 사고하고 신체(몸)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것(동작체험)의 두 가지 관계가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원예치료의 특성은 식물의 생장, 개화, 결실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을 돌보고 키우고 돌본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 회기마다 즐거움과 진지함, 감동과 여운이 함께 하였지만, 그 중 고구마 파종과 수확, 아침고요수목원 관람은 청소년들을 가장 설레게 하고, 감동을 주었던 회기가 아닌가 싶다.

5월 20일 하교 후 청소년들은 고구마 파종을 하기 위하여 센터에 모였다. 고구마 텃밭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기에 서둘러 발로 향했고, 후원기업인 LH원예직할사업단 임직원여러분들께서 발길이와 고랑을 미리 만들어 주셔서 도착하자마자 고구마순을 심을 수 있었다. 정성스레 고구마순을 다 심고난 청소년들은 벌써 고구마 수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고구마가 잘 지랄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마의 성장을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햇빛이었다. 햇빛의 습격으로 파종을 두 번이나 하였지만, 계속되는 습격으로 알알이 맺힌 고구마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수확 양이 많지 않고, 고구마 자세가 꼴뽕이 없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땅의 가치와 수확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10월 9일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 관람은 여러 종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 새와 곤충 등 자연과 함께하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식물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점심으로 먹은 꽃비빔밥의 맛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이렇듯 6개월간 총 16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식물을 심고, 기르는 과정과 꽃과 나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통하여 회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창의성과 집중력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 회기별 주제 ◆

- | | |
|--------------------|---------------------|
| ■ 1회기: 다육식물 옮겨심기 | ■ 2회기: 고구마 파종 |
| ■ 3회기: 조화리스 만들기 | ■ 4회기: 산딸기 포두리 만들기 |
| ■ 5회기: 숭늉작 만들기 | ■ 6회기: 장미 꽃꽂이 |
| ■ 7회기: 압화 부채 만들기 | ■ 8회기: 압화양초 만들기 |
| ■ 9회기: 국화 꽃꽂이 | ■ 10회기: 아로마 비누 만들기 |
| ■ 11회기: 조화 액자 만들기 | ■ 12회기: 토피어리 만들기 |
| ■ 13회기: 테라리움 만들기 | ■ 14회기: 해바라기 리스 만들기 |
| ■ 15회기: 아침고요수목원 관람 | ■ 16회기: 압화열쇠고리 만들기 |



원예치료의 특성



원예치료의 효과



“we are one” 원예치료 작품전시회

본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기 동안 원예치료프로그램 ‘We are one’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이 16회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참여 청소년들이 정성스레 만든 원예작품을 모아 11월 19일 자하철 8호선 신흥역 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원예치료 작품전시회는 그동안의 청소년들의 꿈과 노력, 결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테임커딩에는 신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장대훈의장, 한성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훈, 이덕수, 이재호 시의원, 관계 공무원, 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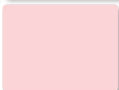
전시작품으로는 다육식물화분, 아로마비누, 압화양초, 테라리움, 숯부작, 국화꽃꽂이, 압화열쇠고리, 토마이어, 압화부채, 신발포푸리, 조화액자, 리스 등 12종류의 작품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한 원예작품과 함께 전시된 사진들은 청소년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모습의 진지함과 열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으며, 작품이 너무 예뻐 사고 싶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이렇게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방과 후 관람하러 온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으며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참여 하겠다며 다짐을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자원봉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준비과정과 전시회장 설치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민들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원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유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의 정성스런 손길이에요~



한국수출입은행 후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남한산성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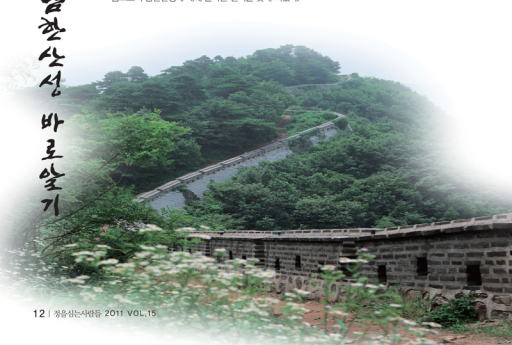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후원금 전달

— 남한산성 바로알기 프로그램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청소년들이 성남지역의 자랑인 “남한산성바로알기위한프로그램”을 위해 후원금 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2010년 10월 9일 ~ 11월 27일 총 5회기 동안 본회 결연가정 초·중 청소년 30여명과 함께 성남의 자랑인 남한산성에 대해 바로 아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자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작된 남한산성바로알기 프로그램은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남한산성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며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성남지역에 자긍심을 갖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참가 청소년들은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남한산성의 자연 탐방로, 산책로를 돌며 숲의 기능과 역할 등을 배우고, 남한산성 역사관을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와 관련된 문헌이나 인물들이 남긴 기록을 직접 봄으로써 남한산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





◎ 프로그램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추 진 내 용
10/09 1회기	숲 체험 나무이야기	숲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알아보기 남한산성에 분포 된 나무조사 (소나무, 떡갈나무 등)
10/23 2회기	호국 정신이 깃든 남한산성 바로알기Ⅰ)	※코스 산성종로(로타리)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영춘정 → 남문 → 산성종로(로타리) (전문 강사 해설)
11/06 3회기	호국 정신이 깃든 남한산성 바로알기Ⅱ)	※코스 : 관리사무소 → 현철사 → 별봉 → 장경사 → 망원사 → 지수당 → 관리사무소 (전문 강사 해설)
11/13 4회기	남한산성 문화체험	국난 극복의 장소라는 '역사성' 에 인식 (대동 굴, 송열전 등 관람)
11/27 5회기	남한산성 밭기	밭로 찾아 떠나는 남한산성 탐방 (등산 전문가 동행 .등산 요령알기, 역사유적 답사)



2010년 제11회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

2010년 9월 11일(토),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주관 하에 “2010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분당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남지역의 60여개의 사회복지단체가 참가하였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5,000여명의 성남시민과 청소년들이 박람회장에 있는 부스에 찾아가 체험 및 봉사신청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기관이 배정받은 부스에서는 그간 진행하였던 사업내용 전시와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 및 소원을 적어서 소원나무에 매달기 프로그램인 “소원을 말해봐~”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또한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회 부스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한 청소년들에게는 빵, 음료, 홍보물 등을 나누어 주었다. 본회를 돕기 위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함께 본회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주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업후원 나눔행사

현 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2010년 3월 24일 성남시의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10kg 쌀 525포대를 본회에 후원하였다. 본회는 결연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차상위 계층 가정에 쌀을 고루 전달함으로써 행복한 밥상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 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는 2010년 9월 1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맞이 사랑나눔을 위해 본회 결연가정 10가정에 각각 상품권과 쌀 10kg씩을 후원하였다. 자원봉사자들도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모두가 기원하였다.



금 융결제원은 2010년 9월 16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과일·떡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3회째 계속되는 추석나눔 행사도 본회 결연 가족들에게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KT 송도지점에서 후원한 쌀 300kg도 함께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정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2010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3년 째 매해 이어지는 금웅결재원의 사랑의 연탄나누기!

2010년 11월 18일(목) 금웅결재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성남에 거주하는 연탄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가정에 연탄 200장 썬 20kg 1포대, 라면 1박스를 전달하는 '2010년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진행하였다.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앞서 정태자 회장은 전반적인 기관소개와 매해 본회와 함께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는 본회 직원들과 함께 A·B조로 나누어 심곡동, 오야동과 단대동, 신흥동 등의 10가정으로 향하였다.

매해 본회와 함께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던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 분들은 춥고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익숙한 모습으로 대각선으로 대열을 맞춘 후 연탄을 옮기며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단대동 가정의 아버님은 연탄을 전달하여 주는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 분들의 고생하시는 모습에 매해 고맙고 미안하던 말을 하시며 커피를 대접해 주었다.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분들은 이 커피한잔이 어떤 브랜드 커피에 못지않게 맛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하며 추위속에서 팔자만 달콤한 휴식을 즐겼다. 성남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심곡동과 오야동 지역은 각 가정의 거리가 멀고 비포장도로여서 연탄을 전달하는데 차량을 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분들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연탄을 전달했다. 금웅결재원 자원봉사회에서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시라질 때까지 매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봉사를 하고싶다는 말을 전하며 2010년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마무리 하였다. 연탄 200장 썬 20kg 1포대, 라면 1박스를 전달받은 가정들이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 생각하며 금웅결재원 자원봉사자들의 사랑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하는 마음의 실천, 연탄 배달



정승훈_ 금융결제원 VAND개발팀

데서온 추위가 유난히 일찍 찾아온 2010년의 어느 겨울 날, 금융결제원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40여명의 직원들이 연탄배달을 위해 신흥동으로 향했다. 사랑의 나눔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실패 실천은 잘 하지 못했던 한 해를 반성하는 동안, 어느덧 버스는 도착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한 뒤 버스에서 내렸다. 쌀쌀한 날씨로 거리는 한산했지만 따뜻한 온정의 마음이 거리를 연탄화로만큼이나 뜨겁게 느껴지게 했다. 일행들은 정을 심는 복지회 사무실로 이동한 뒤 가구당 200장의 연탄을 배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배달에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연탄을 배달해 줄 가정을 위해 쌀과 라면을 버스에 싣고 연탄 배달 장소로 출발했다.

효율적인 배달을 위해 A조와 B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B조가 먼저 내려 배달지로 걸어갔고 A조는 태평동의 어느 거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라면박스와 쌀을 나눠들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한옥이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대문과 비가 오면 방으로 물이 썰 듯한 녹이 쓴 지붕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었던 쌀 한가마니가 텅텅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문까지 나오신 할머니는 직원들을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밝은 모습으로 환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준비하고 드리려고만 한 행사에 나눔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쌀을 건네 드린 후, 1m 간격의 연탄배달 줄을 지그재그로 만들고 본격적으로 연탄을 옮기기 시작했다. 손에 손을 거쳐 이동하여 창고에 쌓여나가는 연탄은 어느 덧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 줄 사랑의 탑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탄 한 장이면 차가운 냉온의 겨울 반나절은 아랫목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바라본 연탄배달의 현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정답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서로의 행복체온을 높여가고 있었다. 임직원 세대별로 연탄난방에 대한 경험은 각기 다르지만 재마디의 뿌듯함이 얼굴에 미소로 번지는 듯 했다. “198, 199, 200” 힘찬 외침과 함께 200장의 연탄은 창고로 모두 옮겨졌다. 그렇게 연탄배달의 흔적으로 얼굴 곳곳에 자라난 검은색의 자랑스러움을 감긴 채 모든 가구의 배달을 끝마쳤다.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깨와 팔다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기분은 참 좋은 날이었다.

연탄배달은 나눔과 따뜻한 겨울나기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작은 실천, 작은 온정이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하는 노인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의 손길인지를 알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연탄도 자신을 태워가면서 구들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 그 온기는 몸을 녹이고 추위에 얼어있는 마음까지 녹여내어 온정이 넘치는 세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내내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은 뜻 깊은 봉사활동이었다.

정든집 정신장애인 자립 기금 마련 바자회 “Green Jump”



본회 부설기관인 “정든집” 정신장애인 자립기금마련 바자회 “Green Jump”가 2010년 6월 28일(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수정구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준비시간이 짧았던 본회 바자회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과 성공적인 바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침에 걸쳐 물건구매와 재료 손질 및 준비에 힘을 쏟았다.

이날 자립기금 마련 바자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러 메뉴의 음식들과 영사 애장품·후원물품 진열 및 판매, 정든집 여가프로그램 전시, 색소폰 공연, 청소년 노래자랑 등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에서 활약 중인 가수 아가와 상일이 참석하여 자리를 한층 빛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당 Feel 색소폰 아카데미 임의석 대표와 회원분들의 감미로운 연주 그리고 본회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의 공연은 바자회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본회를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후원자분들과 한국인 1호 메이저리그 진출 야구선수 박찬호를 비롯한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등 각계각층의 많은 유명인사들은 “본회의 자립기금마련 바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본인들이 가지는 애장품을 기꺼이 기증해 주었다. 이날 바자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은 여러 유명인사들이 기부한 애장품들을 둘러보며 신기하고 놀라워하며





즐거워했다.

본회의 정신장애인 자립기금마련 바자회 개최 소식을 접한 많은 지역인사 분들과 지역시민들은 많은 격려와 힘을 보내주었고 이들 중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신영수 국회의원은 따뜻한 격려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직접 사방을 하며 많은 지역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정든집 회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되었다.

영사 기증품:

박찬호(메이저리그 한국인 1호 투수: 싸인볼, 스파이크화 외), 송필호(중앙일보 대표이사: 만년필, 넥타이 외), 강석·김혜영(본회 홍보대사: 모자, 에이프런), 이은시(한라건설 부사장: 벨트 외), 최란(텔런트: 화장품), 경규한(리바트 대표이사: 전기후라이팬 외), 안광렬(성남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대표: 연진오일 교환권), 강만수(본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 입력발של 외), 강수연(P&G 이사: 화장품 외), 신동일(P&G 차장: 화장품 외), 정기업(성남시새마을버스연합회 회장: 입력발של), 유혜선(성남시 서예가 총연합회장: 서예품), 김경숙(성남예총: 문인화), 김민재(디자이너: 코트 외), 강화중(본회 이사장: 산삼주 외), 강한기(한국음식문화직업전문학교 교장: 소금), 홍연화(고은한지공예 회장: 생합), 안명재(센들라워 회장: 화분), 이혜경(평택대학교 교수: 솔룩차 외), 이강현(현인 코스메틱 대표: 화장품 외), 김은숙(늘이세상지역아동센터장: 한지공예품 외), 강호연(대양상선: 지갑 외), 강영선(얼마누리 회장: 어그부츠), 김단화(3단우산 외), 이창훈(AK플라자 본부장: 패딩 외), LH위례직할사업단(남성화장품 외), 성남일화축구단(사인축구공), 김승월(MBC PD: 칼라돌보기 외), 정성진(의료 사장님: 정장 외), 마성식(스포츠의류 사장: 트레이닝복), 엄명화(비누 외), 강수진(파운데이션 외), 조아름(선풍기)





“소원을 말해봐”

박유경 _ 정든집 사설장

“시간 참 빨리 흐른다..” 정든집에서 요즘 제가 하는 혼잣말입니다.

정든집에 온지 아직 일 년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회원들과는 몇 년을 함께한 사이 인 것 같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괜시리 빨리 흘러가버리는 것 같아서 요즘 들어 이런 혼잣말을 자주하게 됩니다.

정든집에 봄에 와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쌀쌀한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이 지날 때 마다 항상 걱정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것은 단 하나 회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환절기 때만 되면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외부활동을 하시는 회원들을 보면 대인관계는 잘 하시는지, 힘드는데 참고만 있지는 않는지, 회사를 다니시는 회원들에게는 잘 견뎌야 할 텐데, 독립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퇴근 후 집에 가셔도 마음 한 구석은 정든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의 걱정을 한꺼번에 날려주는 사람은 역시 정든집 회원분들 이 십니다.

저의 걱정엔 보란 듯이 너무나도 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증상을 잘 파악하여 재발의 증후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으시는 회원분 들, 외부활동을 다니면서 자신의 장점과 끼를 발산하여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시는 회원분 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자신의 독립계획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는 회원분 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참는 법도 배우고 자신의 주장도 펼칠 수 있는 법을 알아가시는 회원분 들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정든집에 계시는 회원분 들입니다.

2010년의 겨울을 보내면서 정든집 회원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모양처가 되고 싶으신 분, 멋지게 독립하여 노래도 부르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노년을 꿈꾸시는 분, 회사생활에 잘 적응해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싶으신 분, 재발하지 않고 증상이 좋아져 약을 먹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분, 정든집 회원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결코 거창하거나 꿈을 이루기 희박한 확률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며 그 안에서 소중한 작은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2011년 새해에는 정든집 식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든집 파이팅!



여가 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은 재활이나 치료적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무 감동적 이고 소극적인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삶의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활동과 자기표현을 함으로 사회화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1. 뮤지컬 올숙업 공연 관람

2010년 5월 29일 “재능을 나눴다”의 후원으로 한전아트센터 뮤지컬 “올숙업” 공연을 감상하였다. 밝은 사랑이야기로 진행된 뮤지컬에 회원들이 모두 재미있게 보았다.



2. 마티네 콘서트공연 관람

2010년 9월 17일 “재능을 나눴다”의 후원으로 마티네 콘서트에 다녀왔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마티네 콘서트는 지휘자 정영호의 해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공연하는 내용으로 기대이상으로 재미있었기에 클래식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남한산성 등반

2010년 10월 27일 성남중앙도서관에서 전시 중인 “마음을 담다”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다.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시작된 G-mind 정신건강 사진전은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였다. 사진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 관한 주제로 회원들은 사진전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3. G-mind 정신건강 사진전 “마음을 담다”

2010년 10월 27일 성남중앙도서관에서 전시 중인 “마음을 담다”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다.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시작된 G-mind 정신건강 사진전은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였다. 사진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 관한 주제로 회원들은 사진전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요리 프로그램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 중 요리프로그램은 회원들이 독립생활을 할 때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주2회에 1회로 진행되며 요리 주제는 회원들의 자치회의에서 결정된다.

1. "맛있는 잡채"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한 잡채를 함께 만들었다. 이제는 채썰기 등 기본적인 과정에는 자신감을 보였고 맛도 좋았다.



4. "육개장"

재료 손질부터 조금은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의 육개장요리를 만들었다. 처음 시작하면서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맛이 있어서 밥과 함께 한 그릇 똑딱 해치웠던 육개장이었다.



3. "골뱅이 무침"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 재료를 썰고 함께 골뱅이 무침을 만드는 동안 회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되었다. 회원들 모두 이제는 요리솜씨가 제법 늘어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깔난 골뱅이 무침이었다.



2. "검은콩국수"

콩을 불려 믹서에 갈고 준비하면서 하나의 음식이 나오기 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요리 프로그램이었다.





행사 프로그램

1.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정신건강의 날은 처음 1968년 5월 7일로 제정 되었으나 1995년 4월 4일로 다시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4' 라는 숫자가 불길한 의미를 지녔다는 문화적 편견을 깨듯 정신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없애자는 뜻에서였다.

정신건강의 날 홍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수정하여 사회적 공감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든집을 비롯하여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성남시 소아 청소년 센터, 성남시 알코올 상담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은 고운누리, 꿈터가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직접 만든 "수제쿠키"와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든집을 홍보하였다.



2. 생일파티

"당신은 사랑받기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든집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회원들의 축하 속에 회원들의 생일날 생일파티를 열어 주며 서로의 격려와 사랑을 확인 합니다.



3.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공동캠프는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정신장애인의 사회성, 자신감, 성취감을 갖는 새로운 경험의 행사로 재활촉진과 사회복귀시설의 연대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6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은 입식식과 레크리에이션 축구경기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날은 정신장애인당사자들의 인권, 사랑, 노후생활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하였다. 1박2일의 캠프 동안 정든집 회원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이었으며 외부에서의 하룻밤이 더 서로를 챙겨주며 이해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4. 추석명절행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정든집에서는 맛있는 송편과 전을 만들고 웃노이를 하여 승부를 가려 상품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모두가 함께한 명절이라서 훈훈하였다.



5. 에너지 관리공단 후원

2010년 11월15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선풍기를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으로 후원하였다.

용량도 커서 식구가 많은 정든집에 안성맞춤이다. 후원을 해주신 에너지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6. 정든집 상반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2010년 6월 17일 정든집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열린신경정신과 안강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든집 법인 정태자,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서용진 센터장, 보건소 선은희 담당, 지역사회대표 김재노 시의원, 정든집 강욱자 가족대표, 경원대학교 이금재 간호과 교수, 고운누리 시설장 김애리나 등 모두 함께 모여 정든집 사업활성화 방안에 회의를 하였다.



7. 정든집의 자랑 “수제쿠키”

정든집에서는 성남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브랜드인 “해피투게더” 사업에 참여 정든집 회원 중 3분이 2010년 6월부터 직접 만든 “수제쿠키”를 분당구보건소와 판교지소 내의 해피투게더에 매주 납품을 하고 있다. 납품후 수익금은 전액 모두

정든집 회원들에게 돌아가며 쿠키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엄마들이 개별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추계학회 간식으로도 납품하였다.

(쿠키 주문번호: 031-754-1176)



* 정든집 회원현황

1. 김**회원이 올 1월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90kg정도 되었을때 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16kg을 감량했으며, 목표는 60kg이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다이어트 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2. 안**회원이 올 6월부터 크로토피아에 취업을 하였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현재는 정식사원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든집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파이팅!
3. 신**회원이 정든집에 입소하실 때 세운 감정고시 함격이 목표 달성되어 퇴소하였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루고자하는 것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
4. 오**회원이 올 6월에 고운누리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실습"에 참여하여 11월까지의 실습을 마쳤다. 멋진 바리스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있다.
5. 신**회원이 쿠키사업의 드림팀멤버로서 재미와 행복과 능력을 한번에 인정받고 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6. 신**회원은 쿠키사업의 팀장으로서 만민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술선수범하여 굿은일을 미다하지 않고 수채쿠키를 만드는 사람으로 지부심도 대단하다. 제과업계에 마이더스가 되기를 희망한다.
7. 박**회원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언제나 명랑하고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회원이다.
8. 김**회원은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의 표본이다. 한시도 쉬지않고 움직이는 부지런함으로 모든 이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9. 이**회원은 올 11월에 새로 입소한 회원이다. 익히고 배우야 할 것이 많은 신입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기존 회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일시쉼터

한울

길거리 이동상담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행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들 왕래가 많은 전철역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이 밀집된 지역을 찾다니며 잠재적 가출위기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가출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다.

위기청소년들에게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긴급한 조치를 해주는 위기개입과 쉼터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일반 주민들에게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쉼터 인식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쉼터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24일까지 길거리 이동상담을 실시하였고 총 73회에 걸쳐 우리가 만난 청소년은 13,736명이었으며 964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길거리 이동상담 활동 현황

■ 활동기간 : 2009년 11월 10일 ~ 2010년 11월 24일

횟 수	일 시	장 소	만남 청소년수		상담실적	
			남	여	남	여
1	2009.11.10	수진동/수진중학교	52	78	8	10
2	11.17	태평동/태평중학교	86	100	8	11
3	11.24	태평동/중앙시장	58	47	11	11
4	11.25	수진동/수진중학교	69	54	4	7
5	11.26	태평동/태평중학교	163	74	6	5
6	11.27	모란역 주변	60	33	18	5
7	11.30	태평동/신흥동	133	51	16	4
8	12.01	아담역/아담고등학교	120	103	3	16
9	12.02	태평동/교보생경	72	70	5	7
10	12.03	단대동/성북정보고등학교	173	180	5	9
11	12.04	모란역/수진2동	32	28	7	8
12	12.07	아담역	60	37	7	10
13	12.08	성남동/성일중학교	37	20	8	4
14	12.09	금곡동/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83	67	8	8
15	12.11	서한역 로데오	120	180	1	17
16	12.15	성일여중학교/성일중학교	128	140	1	17
17	12.16	성일고등학교	108	392	12	6
18	12.17	창곡중학교/창곡여자중학교	112	203	9	7
19	12.22	태평동 중앙시장/신흥동 주변	48	43	2	0
20	12.31	태평동/신흥동	58	64	3	7
21	2010.01.08	신흥역 주변	72	91	2	5
22	01.22	신흥역 주변	43	100	2	7
23	01.28	상대원시장	70	53	1	4
24	01.29	서한역 로데오	34	66	0	3
25	02.02	금강동/은행동	82	37	1	0
26	02.04	태평동 주변	132	85	5	2
27	02.05	신흥역 주변	91	150	2	8
28	02.11	아담역 주변	41	48	1	2
29	02.19	신흥역 주변	87	193	3	8
30	02.22	아담역 주변	49	69	0	2
31	02.26	아담역 주변	28	40	0	1
32	03.03	태평중학교 주변	188	241	0	0
33	03.05	신흥역 주변	212	247	2	1

일	시	장 소	만난 청소년수		상당실적	
			남	여	남	여
34	2010.03.12	서한역 주변	177	203	0	2
35	03.18	태평역/태평중학교	170	343	1	6
36	03.19	신흥역/종합시장 주변	162	138	1	2
37	03.24	태평중학교	187	153	0	7
38	03.26	아람역 주변	38	33	0	0
39	04.07	성남여자중학교	0	300	0	2
40	04.16	신흥역 주변	46	71	6	17
41	05.07	신흥역 주변	72	107	0	2
42	05.12	태평동/중파사거리	51	167	4	13
43	05.14	신흥역 주변	96	182	16	23
44	05.27	태평동/교보생명 주변	47	84	2	6
45	05.28	서한역	75	127	4	12
46	06.04	신흥역/지하상가	37	92	2	6
47	06.09	성남여자중학교	0	220	0	19
48	06.11	상대원시장/대원초등학교/대일초등학교	36	67	9	13
49	06.16	태평중학교/태평동	257	341	15	36
50	06.18	신흥역/지하상가	61	86	10	13
51	06.24	태평동/신흥역 주변	74	61	12	5
52	07.06	태평동/종합시장 주변	59	132	6	12
53	07.07	태평초등학교/수진초등학교/태평동주변	73	41	11	5
54	07.14	상대원시장/대원초등학교/대일초등학교	67	48	9	5
55	07.16	신흥역	94	101	10	3
56	07.23	태평동/종합시장 주변	93	116	8	8
57	07.27	태평동/수진초등학교	58	47	6	5
58	07.28	신흥역 주변	112	64	7	4
59	08.04	아람역 광장 주변	62	81	7	4
60	08.06	신흥역 주변	42	61	3	7
61	08.11	태평동 주변	83	112	5	11
62	08.20	신흥역 주변	42	79	2	5
63	09.03	신흥역/지하상가	37	68	4	7
64	09.11	분당 중앙공원 광장 주변	92	226	11	23
65	09.15	상대원시장/파출소 주변	47	35	7	2
66	10.14	아람역 주변	67	81	8	11
67	10.15	신흥역 주변	44	61	6	8
68	10.29~30	신흥역 주변	42	31	19	13
69	11.05	신흥역 주변	72	61	11	8
70	11.09	태평동/태평역 주변	54	43	9	4
71	11.10	태평중학교/태평초등학교 주변	53	36	6	2
72	11.19	신흥역/지하상가	69	110	7	7
73	11.24	상대원시장/학교 주변	41	53	5	4
소 계			5,890	7,846	410	554
총 계			13,736		964	

◎ 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본 조사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27일까지 1년간 본 쉼터를 이용한 남,여 청소년들의 이용평가서 및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음.

1. 운영 현황

구분	총계	이용청소년			귀가,연계 인원			상담실적		
		목표	결과	대비	목표	결과	대비	목표	결과	대비
인원	5,849	2,400	4,324	180%	36	42	116%	600	1,483	247%

- 이용청소년은 4,324명으로 연간 목표인 2,400명 보다 1,924명이 초과(180%) 이용하였음.
- 귀가,연계 인원은 42명으로 연간 목표인 36명 보다 6명이 초과(116%) 이용하였음.
- 상담실적은 1,483건으로 연간 목표인 600건 대비 883건 초과(247%) 달성하였음.

2. 이용청소년 현황

구분	총계	남					여				
		13세 이하	14 ~ 16세	17 ~ 19세	20세 이상	소 계	13세 이하	14 ~ 16세	17 ~ 19세	20세 이상	소 계
인원	4,324 (100.0%)	35 (0.8%)	1,594 (36.9%)	231 (5.4%)	0 (0.0%)	1,860 (43.1%)	41 (0.9%)	1,963 (45.1%)	466 (10.8%)	4 (0.1%)	2,464 (56.9%)

- 이용청소년 성별로는 전체 4,324명 중 여자청소년이 56.9%(2,464명)으로 남자청소년 43.1%(1,860명)보다 이용 비율이 13.8%정도 높았음.
- 연령별로 구분을 해보면, 중학교 재학 중인 14~16세 청소년이 3,547명으로 전체의 82%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음.

3. 이용청소년 특성별 현황

구분	총계	가출	가출위험군	탈학교	학교	기타
인원	4,324 (100.0%)	83 (1.9%)	1,240 (28.7%)	32 (0.7%)	2,966 (68.6%)	3 (0.1%)

*가출 :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

*가출위험군 : 가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고민 중인 청소년

*탈학교 : 자퇴, 퇴학 등.

*학교 : 현재 학교 재학 중

*기타 : 근로청소년

· 이용청소년 특성별로는 전체 4,324명 중 가출청소년과 가출위험군이 30.6%(1,323명)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9 한국 아동·청소년가출실태조사」' 에서 발표한 청소년 가출 경험률 10.1% 인 것을 비교해보면, 본 기관을 이용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전국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4. 상담방법별

구분	총계	청소년		성인	
		남	여	학부모	일반
개인상담	119 (8.0%)	51 (3.4%)	58 (3.9%)	5 (0.35%)	5 (0.35%)
전화상담	126 (8.5%)	33 (2.2%)	31 (2.1%)	26 (1.8%)	36 (2.4%)
심리상담	75 (5.1)	15 (1.0%)	60 (4.1%)	0 (0.0%)	0 (0.0%)
집단상담	196 (13.2%)	57 (3.8%)	133 (9.0%)	6 (0.4%)	0 (0.0%)
거리상담	967 (65.2)	417 (28.1%)	519 (35.0%)	24 (1.6%)	7 (0.5%)
총 합계	1,483 (100.0%)	573 (38.5%)	801 (54.1%)	61 (4.15%)	48 (3.25%)

- 개인상담 -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전화상담 -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쉽 서비스 정보와 타 시설 연계 및 다양한 보호방법이 제공되었음.
- 심리검사 -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음.
- 집단상담 -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적인 집단상담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였음.
- 거리상담 -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또는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각종 social-risk(가출, 폭력, 성매매 등)로부터 보호하고, 가출로 인한 2차적 비행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가정 폭력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가정불화와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가출충동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거리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함께 듣고 나누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음.

5. 상담내용별

구분	총계	가족	가출	비행	학업 부작용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취업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약물 오남용	생활 지도	기타
횟수	1,483 (100.0%)	92 (6.2%)	233 (15.7%)	29 (2.0%)	114 (7.6%)	50 (3.4%)	4 (0.3%)	42 (2.9%)	206 (13.9%)	59 (4.0%)	88 (5.9%)	108 (7.3%)	193 (13.0%)	9 (0.6%)	14 (0.9%)	242 (16.3%)

* 기타: 정보제공

전체 상담(1,483건)의 50%(746건)정도가 가출, 진로, 정신건강, 학업부작용에 대한 상담이었음.

6. 긴급서비스지원활동

구분	총계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기타
횟수	11,625 (100.0%)	4,252 (36.6%)	875 (7.5%)	82 (0.7%)	1,280 (11.0%)	4,162 (35.8%)	974 (8.4%)

컴퓨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로서, 음식제공(4,252건)으로는 식사/간식, 휴식제공(4,162건)으로는 긴급잠/PC활용/영화감상/게임/독서, 의료서비스(1,280건)으로는 응급치료/의약품제공, 위생서비스(875건)으로는 샤워/생리대/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제품 제공, 피복제공(82건)으로는 속옷/ 티셔츠/바지/양말/슬리퍼, 기타(974건)으로는 휴대폰충전/정보제공 등이 지원되었음.

7. 사회성향상프로그램(원예치료 프로그램, 캠프, 문화활동)

구분	원예치료 프로그램	캠프	문화활동
회기/인원	16회기 / 302명	1회 / 22명	5회 / 67명

-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기에 걸쳐서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진행되었다.
- 캠프는 '자연속으로의 캠프' 라는 주제로 모험 개척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숙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심신 단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문화활동은 총 5회 실시가 되었다. 한울! 청소년을 만나다, 쿠키만들기, AFC챔피언스리쓰 관람, 프로야구 관람, 장한나의 Absolute classic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8. 홍보활동

	계	길거리	기관	업소	학교	타기관	인터넷	매스컴	기타
홍보장소별	934	78	243	202	38	7	0	6	360

* 기관: 청소년 유관 기관

* 타기관: 파출소, 경찰서

* 기타: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계	공문	전단지	리플렛	명함	인터넷	보도 자료	홍보 물품	기타
홍보물품별	39,945	0	0	9,590	4,961	241	5	21,791	3,357

* 홍보물품: 물티슈, 부채, 볼펜, 손난로, 티슈

* 기타: 막대사탕

■ 전반적인 활동 평가 ■

1.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한 기관으로서 이용청소년의 연간 목표치인 2,400명을 넘어서 4,324명이 이용하였다. 이용청소년 중 42명이 귀가·연계 서비스를 받았으며, 1,483명이 상담서비스를 받았음.
2. 이용청소년의 특성을 보면 일반청소년이 68.6%로 가출청소년·가출위험군의 30.6%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음.
3. 이용자 평가서를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4. 가출, 진로, 정신건강, 학업부적응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음.
5. 경기도 성남시에 일시쉼터가 처음으로 개소를 하였고, 이용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청소년들 간의 홍보효과가 높았음.
6. 18시~21시에 이용청소년들이 집중되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청소년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7.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음식, 긴급 잠, 피복, 샤워 및 휴게 공간 제공의 욕구가 높았으며, 일반청소년의 경우 문화서비스, 심리검사, 진로검사 등의 욕구가 높았음.
8.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거리상담에 많은 제약이 있어 활동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차량을 이용한 이동쉼터 홍보부스가 필요하며, 거리상담 시 가출청소년 긴급서비스 및 보호와 은둔형 위기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거리상담 전문가 배치 및 전문가 양성교육 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 캠프, 외부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용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하며 원예치료, 축구, 탁구, 쿠키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실시해 줄 것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였음.



꿈을 위한 도전 ‘한울청소년캠프’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17~18일(화, 수) ‘한울 청소년캠프’를 1박 2일 진행하였다.

쉼터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 ‘한울청소년캠프’의 경우에는 모집에서부터 출발 당일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과 열정을 보여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초과하였다.

이렇듯 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쉼터에 모인 청소년들은 첫 번째 일정을 위하여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생가로 향하였다. 청소년들은 본회 정태자 회장의 설명을 통해 정약용 생가와 다산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정약용 선생의 유년시절과 업적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약용 생가인 여유당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 정신과 우리나라 가옥의 특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양평 미리내캠프장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즐겁고 신나게 각자의 열정과 끼를 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쉼터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정태자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캠프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의 경쾌한 음악과 적당한 움직임은 청소년들이 캠프에 즐겁게 참여할 자세를 갖게 해주었다.

캠프장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오리엔티어링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조별로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캠프장 주변에 심어져있는 포스트에서 스탬프를 찍어 지정된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땀은 많이 흘렸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별 간 의사소통을 통해 점수가 높은 포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을 서로 격려하며 해맑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열심히 캠프장을 뛰어다닌 청소년들에게 저녁식사 메뉴로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는 고기뷔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외에서 마음껏 먹도록 한 저녁식사는 땀을 흘린 맛에 왕성한 식욕을 동반하였고 친구들 간에 서로 구어 주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녁 식사 후 대학 응원 동아리에서 항상 선보이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라는 음악에 맞춰 의욕적으로 응원 댄스에 참여하였으나 빨라지는 음악과 어려워지는 안무를 익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였을까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한 응원댄스는 마치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치어리더와 같은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날은 11m 상공에서 외줄 건너기, 통나무에 올라서서 점프하여 메달리는 이글점프 등 높은 곳에서의 단련을 시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였다. 청소년들은 홀로 통나무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였지만, 막상 조교 선생님의 호루라기 구령이 떨어지자 한발 한발 통나무 꼭대기에 올라서서 멋지게 점프하며 참가자 모두 능률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통나무 꼭대기에서 공중으로 점프한 청소년을 지상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와주면서 자발적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캘린지 프로그램 중 공중에서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점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번 '한울청소년캠프'가 참가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모험게체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각자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 청소년 족구대회





“선생님~ 한울에서 스포츠 활동은 언제해요?”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으로 2010년 11월 13일 (토) 창곡중학교 실내체육관 2층에서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 청소년 족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회와 성남 모란로터리 클럽 주최, 성남시 족구연합회 후원,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가 함께 주관한 족구대회는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와 본회 정태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청소년들은 각 팀에 맞는 등번호를 착용하였고 기다리던 족구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초청된 공군 제 15 전투비행단 족구단과 은공 족구단의 시범경기가 펼쳐졌다. 특별초청 족구 시범 선수들이 역동적인 경기모습을 보이자 청소년들은 “와~ 멋있어요, 짱이에요, 저도 빨리 뛰고 싶어요!” 등의 합성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 초청 족구 시범경기를 마친 후 이날의 주인공인 한울쉼터 이용 25명이 참가한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기는 전국 족구연합회 공인 심판인 김명렬님과 성남 모란로터리클럽 회장이자 본회 운영위원인 이완상 회장 심판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장난기 가득한 모습의 청소년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경기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사뭇 절의에 찬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경기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모란로터리 클럽에서 준비한 문화상품권과 본회에서 준비한 여러 상품을 나누어 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기의 승패를 떠나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과 협동심을 배우고 자신감 향상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광주 · 전남지부

사랑의 두손잡기 -따스한 겨울 나누기-

(사)정을심는복지회 광주·전남지부(이금례 회장)는 지난 11월 19일 “정을심는이야기3”란 주제로 사랑의 호프 테이블 열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11월 30일 전남 화순군 하나옴센터에서 회원 50여명과 지역의 단체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배추김치 1500포기를 담근 후, 광주·전남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 240가정에 배달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비인가 노인시설과 독거노인에게 연탄을 배달하였다.





제주도지부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제주지부(지부장 유상근)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20일(토)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김장김치 3,000포기는 (사)정을심는복지회에서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내 청소년 가정과,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 또한 남원읍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시설 살레시오의 집과 서귀포시에 있는 성요셉 요양원에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회원들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하여 봉사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제주지부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은 금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앞으로도 김장 나누기는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랑음악회



제주도지부는 2010년 7월 3일(토) 평양요양원에서 제주플루트 카론양상블(지휘 김정택)과 제일은행 제주지점(지점장 최태호), (사)정음심는복지회 제주지부(지부장 유상근)가 공동으로 “찾아가는 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회에서는 제주플루트 카론양상블의 주옥같은 플루트 곡과 오카리나 연주가 있었으며, 특별 출연한 제주의 꿈나무 광양초등학교 6학년 강제현군 오누이의 하모니카 연주 솜씨는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연료하서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요양원에 전달하였다.

언론보도 자료 1) 제주포커스 2010. 07. 05자

제주카론 양상블 '찾아가는 사랑 음악회 개최'

2010년 07월 05일 (토) 11:41:45

김민호 기자 kimh@naver.com



순수 카론주어 양상블 단체인 제주플루트카론양상블(단장 유상근)이 지난 3일 서귀포시 요양원을 위치한 평양요양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Amazing grace' 등 플루트 양상블 연주와 오카리나 협주, 강제현군오누이 하모니카 협주 연주를 해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번 연주에서는 SC제일은행 제주지점 직원 20여명과 (사)정음심는복지회 제주지부가 후원했다. 이들은 연주를 도와주고 사할 성금 5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유상근 단장은 '이번 연주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됐으면 한다'면서 "커를 더 그르스어로 기쁨이란 것이 만큼 값으로도 기쁨을 나누기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한미안 제주플루트카론양상블은 교사와 학생, 교사, 교직원, 봉사원, 주부들 다 있는 학업의 20~500여명들을 구성했다.

언론보도 자료 2) 제민일보 2010. 07. 05자

제주플루트 카론양상블 사랑음악회 개최

제주플루트 카론양상블(단장 유상근)은 지난 3일 서귀포시 요양원 소재 평양요양원을 방문, '찾아가는 사랑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Amazing grace' 등 플루트 양상블 연주와 오카리나 협주 등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강제현(5년초)이 군인 하모니카 독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SC제일은행 제주지점 직원 20여명과 (사)정음심는복지회 제주지부가 후원으로 열렸으며, 행사가 끝난 후 참석



자들은 성금 50만원을 모아 평양요양원에 기탁했다.

고재하 수습기자 kha@min.com



제주도지부

제주지부에 “봉사기금” 답지

가. 국제와이즈멘 인천산돌 · 제주백록클럽 DBC결연 기념 성금기탁

국제와이즈멘 인천산돌클럽(회장 정일규)과 제주백록클럽(회장 이성철)은 지난 2010년 4월 29일(토) 양 클럽 간 친교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Domestic Brother Club(국내형제클럽) 결연식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금을 (사)정을심는복지회 제주지부에 기탁해 주었으며 이 성금은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질 것이다.

나. 국제와이즈멘 제주부지구 자선 골프대회 성금기탁

지난 2010년 10월 30일(토) 국제와이즈멘 제주부지구(총재 신방식)에서는 친선도모와 자선사업을 위한 골프대회를 제주크라운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어려운 한부모 청소년 돕기를 위해 솔선하여 모금된 성금 전액을 (사)정을심는복지회 제주지부(지부장 유상근)에 후원금으로 기탁해 주었다.



2011년 사업계획서

1. (사)정을심는복지회

항 목		내 용	비 고
회 의	총회	1·2월 중 개최	
	이사회	연 4회 개최	
	운영위원회	연 4회 개최	
결연사업	사랑의 두손잡기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후원금 지급과 상담서비스를 통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연중
청소년사업	어린이날 행사	결연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5월
	청소년 캠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름캠프로 심신단련 및 성숙한 공동체 의식 함양	7~8월
	청소년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진 공모전	9~11월
	남한산성 바로알기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한 체험학습	10~12월
상담사업	결연가정 대상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	연중
	외부의회 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원과 연계된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연중
	부모상담	결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상담	연중
청소년유해환경감감사단		연중 홍보 계도활동 및 지도단속	
지역복지사업	설날행사	설날 아침상을 치리기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누기	1~2월
	정을심는콘서트3	지역 문화복지 사업	9월
	한가위 행사	송편 및 곡일 나누기	9~10월
	사랑의 연탄나누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배달 서비스	11~12월
	김장김치나누기	따뜻한 겨울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누기	11~12월
출판사업	소식지		2회
	리플렛 제작		연중
	홈페이지 업데이트		연중
비자회	1일 찾집	가급마련을 위한 비자회	연중

2.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항 목		내 용		비 고
1. 현장지원 서비스	음식제공	식사, 간식		연중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이·미용, 샤워실 이용 / 의복 제공(속옷, 양말 등)		연중
	의료지원	임산부응급테스트약제공, 구충제, 곤돌, 구급약품 등		연중
	휴식제공	보드게임, TV, DVD, 인터넷, 간식, 사책만화, 잡지, 긴급장		연중
	거리위험 대처교육	성, 자살, 약물, 노동, 범죄, 흡연, 음주, 인권유린 관련 교육		연중
2. 조기개입 서비스	사회성 향상지원	캠프, 문화활동, 원예치료, 한지공예, 대안관계, 예절, 사회기술 등		연중
	정서지원	개 인 상 담	청소년을 위한 개별상담	연중
		전 화 상 담	전화를 통한 청소년 또는 친·인척 상담	연중
		심 리 검 사	홀랜드, 예고그램,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MBTI 등	연중
	거리상담	가출청소년발견활동, 가출예방교육, 캠페인 등		주3회
3. 연계활동 서비스	정보제공	취업, 진로, 지역사회 사실과 서비스, 생활정보		연중
	지역사회연계	상담소, 청소년단기쉼터, 법률, 문화의집, 대안학교, 학교, 성폭력 및 미혼모 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관 등의 연계		연중
	귀가지원	차별지원, 가족 및 학교와의 중재역할		연중
	지역사회교육	지역 청소년 방문 및 캠페인		연중

3. 정든집

1.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낮시간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호작업장, 직장, 학업생활 지역복지관, 학원 등					-월 2회 집으로 귀가 -각종 프로그램 및 종교활동
저녁시간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악물증성교육, 여가활용훈련, 직업재활훈련, 개별상담 등					
기타	가족교육·모임, 차모임 월 2회, 생일파티, 명절행사, 송년회, 여행 정신건강의학과 행사 등					

2. 평가도구

-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 자존감 척도(SE)
- 자아존중감척도(Self-Scale : SES)
- 자기주장척도(Rathus assertiveness scale)
- 스트레스 자가 진단척도
- GAR(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 구직욕구 진단 검사
- 삶의 질 척도
-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 사회적응능력평가
- 의사소통기술척도
- 프로그램 만족도

3. 사업관련 교육 및 회의

- (1) 법인 주간회의 - 주 1회
- (2) 정든집 주간회의 - 주 1회
- (3) 운영회의 - 연 2회
- (4) 사례검토 및 직원교육 - 월 1회

감사합니다!



★ 후원자

곽경자	강만수	강수연	강영선	강옥자	강호연	강화중	강희동	고은미	국경미	김광현	김기영	김기환	김기환
김명이	김미희	김민재	김선미	김선형	김만규	김영우	김영희	김오열	김재근	김재년	김정환	김태명	김학근
김형우(성해숙)	김혜식	마우성	문예훈	문정용	민병관	민준국	박기출	박덕재	박두건	박복옥	박성경	박성혁	박성혁
박성분	박영국	박영례	박윤백	박옥성	박인권	박정희	박형권	박호식	박희영	서원택	서정애	성찬환	손영간
송한택	신옥자	신완수	신용화	신윤호	신종균	신희원	안명자	안성미	양기호	양옥경	양자아	임정숙	여경주
염강택	오세구	오재환	원영숙	원창용	유정순	유하순	윤여익	윤철순	이경수	이금재	이남규	이문섭	이미경
이석재	이석환	이숙희	이연규	이영기	이원성	이재욱	이종우	이 준	이혜경	장병화	장소자	전순석	전홍배
정선화	장태자	정현숙(박인석)	조수현	조영태	조종근	조종근	차형남	채혜영	최만순	최상도	최옥순	하복남	한경순
한석주	허기우	허성아	홍금숙	홍준기	홍해영	황보정희	이미트	해피인					

★ 물품 후원

- 쌀 - 귀촌자, 금융결제원,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현대대성화재보험, 한국은행, KT인천본부
- 김치 -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주)마이다스아이티, 태평2동주민생활지원센터, 하나로마트
- 도서 - 신한은행 성남지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가공공사
- 라면 - 금융결제원, 성남시고용서비스협회,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 연탄 - 금융결제원
- 부식 - 뽕의전설, 하사함푸드뱅크
- 상품권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 생필품 - (주)한영나연, 성일정보고등학교, 정현운
- 쌀날 떡국거리(떡국,고기) - (주)리바트
- 추석 송편 및 과일 - 금융결제원
- 운동기구(줄넘기,뽕살) - 경기도생활체육회
- 의약품 - 동국제약
- 가전제품(DVD 플레이어,커피메이커) - 심명자

★ 기관 및 기업 후원

금융결제원본사, 자원봉사회, 한결희, (주)리바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마이다스아이티,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한국은행, 산은캐피탈, KT, 전문건설공제조합, 아시아 분당지점, 법무법인(대륙)아주, 성남지아파트부녀회, (주)나니, (주)케이엠에스, 경기도청, 성남시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나위레직할사업단, 카본텍,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한국휴머니스트회, 신한은행 성남지점, 직장공장새마을부녀회, 심곡교회

★ 자원봉사자

강경옥, 김미영, 강수진, 강성경, 강창문, 고현희, 곽홍희, 권영식, 김소미, 김숙영, 김승희, 김영준, 김영진, 김민수, 김재희, 김준보, 김하균, 김현식, 김형식, 민경운, 박윤성, 박은하, 박혜숙, 박선영, 배 연, 성찬경, 신동원, 오원길, 오준우, 오종호, 원승재, 윤석태, 윤종형, 이광훈, 이선희, 이상규, 이재운, 이한형, 정우찬, 전 용, 정길용, 정승훈, 정재웅, 조용익, 최대원, 최 영, 최정필,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각종 후원금은 금융결제원 CMS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후원금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후원단체에 전달되어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곳곳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금융결제원

| Tel. 1577-5500